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인식*

김 중 서

1. 서론
2. 사회문화적 분화와 종교인식
3. 신분제도의 변화와 종교인식
4. 서구 문화의 유입과 종교인식
5. 결론

1. 서론

개화기로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인의 정신 세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것은 정신 세계 자체의 상징체계가 끊임없이 자기 수정적 과정을 거친 이유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타고 독특하게 전개된 주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전통 사회가 근대적으로 변모하면서 기존 우리의 미분화되었던 사회문화 체계 자체가 분화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갈등의 양상들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이렇게 분화되면서 분명하게 제도적인 영역이 구획되고 전문화되는 정신 세계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소위 정신 세계를 구성하는 주축인 종교의 상징체계가 비본질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여기에 대내적으로 신분제도의 급변은 촉매 역할을 했다. 사대부 양반층만이 공식적으로 향유하던 정신 세계가 하층민들에게도 자유롭게 열리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항과 더불어 서구 문화의 유입을 당면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99-005-B00010)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2000년 가까이 토착화되어온 한자문화 일변도의 정신 세계가 갑자기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문화 체계에 기반한 새로운 정신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었다.

따라서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을 매개 변수로 하는 종교인식 변화의 정밀한 탐구는 현실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모두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내야 할 오늘날 복잡한 종교지형의 형성과정을 이해하여 우리의 실존적인 종교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것과는 달리 종교를 객관적인 태도로 성찰된 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그 뿌리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화기 종교인식의 변화를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과정의 결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보다는 주체적 맥락에서 사회문화적 구조변동과 묘합하는 한국종교 상징체계의 성숙한 자기 변화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종교 자체를 사회문화 변동의 수반된 결정론적 산물로서 보기보다 독립변수적 차원에서 인식함은 더욱 의미심장한 창조적 해석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본다.

2. 사회문화적 분화와 종교인식

개항이 되고 일본에 파견되었던 신사유람단이 돌아와 새로운 문물에 관한 정보를 풀어놓자 그에 대한 정치적인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새로운 제도들이 들어오고 그들은 폭넓게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한문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삶 속에서 뭉뚱그려 미분화(未分化)되어 있던 정치, 군사, 교육, 의료 제도 등이 따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변화는 또한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종교'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던 셈이다. 물론 개화기 이전에도 종교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 유교, 도교 등 각종의 종교들이 있었고 그들을 포괄적

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도(道), 교(教), 종(宗), 법(法), 술(術)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양어 '릴리전(religion)'이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통용되다 유입된¹⁾ 소위 '종교(宗教)'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었다. 즉 그들은 여러 종교들을 아울러 일컫는 것들일 뿐 아니라 소위 생활세계(Lebenswelt)의 거의 모든 부분과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 거론되었던 셈이다. 심지어는 '종교'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뒤에도 상당 기간동안 그 개념은 미분화된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1899년 고종(高宗)이 내린 「존성윤음」에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종교를 극진히 존송하는 것은 종교가 인심을 맑게 하고 정치의 도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여 아직 종교와 정치가 미분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도서기론을 폄박했던 김윤식(金允植)도 「돈화론」에서 “교(教)라는 것은 사람에게 선(善)을 권하여 항심(恒心)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 하여 도덕적 교훈과의 아직 미분화를 보여준다. 이런 것은 박은식(朴殷植)이 「종교설」에서 ‘교’라는 것은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말씀(말씀)을 정립하심으로써 만민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²⁾

또 당시 유교를 종교화하려고 공교(孔敎)운동을 벌였던 이병헌(李炳憲)과 이승희(李承熙) 등도 사회에서 국교적 지위를 누렸던 유교가 국지적으로 분화되면서 교육이나 국가 의례 등에서 차지했던 총체적 지위를 잃게 됨에 자극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문화 구조로부터 종교의 미분화는 특히 개항기에 내한했던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혼돈스러웠으며 심지어 한국에는 (따로 이렇다 할만한) 종교가 없다는 식의 종교인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독일 상인으로서 1866년과 1868년에 한국에 왔던 오페르트(Ernst Oppert)는 그의 「조선기행」에

1)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본다(김종서, 「동서 종교관의 비교」, 『철학종교사상의 제 문제』 (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44-45면). 하지만 '宗教'가 이미 오래 전부터 불교적 맥락에서 사용되어 온 것이 또한 종종 주장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주장으로는 中村 元 「『宗教』という 譯語」, 『日本學士院紀要』 46/2 別刷 (1992): 40-146면 참조.

2)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0, 157, 159, 178면.

서 한국인은 종교와 종교적 의식(儀式)을 경시한다고 한다. 다만 일종의 경건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종교라고 하기에는 아주 보잘 것 없다고 하며, 그것은 당시 도덕과 연관지어 그 타락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³⁾

또 1883년 국빈으로 한국에 왔던 미국인 로웰(Percival Lowell)이나 1886년 내한하여 육영공원 교사를 지낸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도 한국에는 종교가 없다고 한다. 다만 낡고 원시적인 악령 숭배만이 잔존한다거나 중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종교가 일상생활에 절실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형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렇게 종교가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미분화된 종교의 상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한 경우도 있다. 영국 여류여행가로서 1894년부터 네 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던 비숍(Isabella Bird Bishop)부인은 한국인이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종교적인 양식들을 지니고 있으나 정작 자신의 종교가 무엇인가하고 물어지면 이것이라고 대답할 만한 것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 즉 삶 전체가 종교와 아직 구분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꼬집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⁵⁾

또 1894년부터 최초의 과학적인 한국서지를 냈던 프랑스 동양학자 쿠랑(Maurice Courant)도 (기독교처럼) “만일 종교라는 것이 다소 소화되고 또 다소 자각적인 교의로서 인간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인간과 다른 힘의 존재를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인정한 다음, 그가 이러한 힘을 지배하거나 또는 위무하거나 간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교가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한국에서 특히) 그것은 어떠한 종교보다도 훨씬 커다란 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즉 당시 한국의 중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가 따로

3) Oppert, E., *Ein Verschlu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Leipzig, 1880. 한우근 역, 『조선기행』, 서울: 일조각, 1974. 81-87면.

4) Lowell, P., *Korea: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885. 조경철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서울: 대광출판사, 1986. 218면. 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892, pp. 185-198.

5) Bishop, I. B., *Korea and Her Neighbors*, N.Y., 1898,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p. 399.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잘 지적한 셈이다.⁶⁾

한편 개화기 한국인의 아직 미분화된 종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분화된 서구 기독교적 종교인식을 가지고 왔던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자신들의 종교 속에 있는 명백한 개념의 틀로는 아직 미분화되어 삶 전체가 거의 종교라고 할 한국인의 종교적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지극히 어려웠던 셈이다.

예컨대, 프랑스 외방전교회 선교사였던 달레(Claudes Charles Dallet)신부는 그의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에서 우선 한국인은 하느님[上帝]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면서도 그 뜻을 물어보면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관리자로서 기독교의 하느님처럼 일종의 지고신이라 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농사에 관계하며 병을 물리치고 또 기우제 등의 제사 때 찾아지는 기능신적 이미지를 지니고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애매하고 복잡한 존재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 천(天)과 혼동되기도 하는 상제(上帝) 관념, 영혼과 육신의 구별이나 영혼과 영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직 성현만이 죽은 뒤에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혼으로 남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정교하게 분화된 기독교적 관심에서 아직 미분화된 한국종교의 여러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⁷⁾

한편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장들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최초의 한글성경을 냈던 영국인 목사 로스(John Ross)는 한국 민간신앙에 있는 (귀)신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분류 나열해보려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어 상제(上帝)와 신(神)이 하느님과 귀신으로 각기 번역되어 이 둘이 늘 같이 연관이 있다고 한다. 오직 지고신이기만 한 기독교의 하느님에 비해 귀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신 개념을 이상하게 여긴 셈이다.⁸⁾

그러나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미분화되어 있던 종교 개념이 개화기를 거치

6) Courant, M., 朴相圭 역, 『韓國의 書誌와 文化』, 서울: 신구문화사, 1974, 91-92면.
7) Dallet, C. C.,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Paris, 1874, 안응렬, 최석우 공역,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분도출판사, 1980, 210, 212-215면.
8) Ross, J., "The Gods of Korea," *The Chinese Recorder*, xix (1888): 89-92.

면서 점차 분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중심이 되는 교육, 의료 및 정치의 영역 등에서 일어나는 종교 개념의 분화는 개화기 종교인식 자체의 변화에도 결국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1) 교육 영역에서의 분화

우선 교육의 영역을 보면, 전통적인 학교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정보의 전달만이 아니었다. 성균관과 향교 같은 관학은 물론, 서원 및 심지어 서당에서까지 향사(享祀)의 기능은 중심적인 것이었다. 즉 유교적 옛 성현들을 제사로 모심으로써 이들 전통적 교육기관들은 국가 및 사회적으로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⁹⁾ 즉 교육의 영역은 종교를 상당히 포함하고, 종교로부터 아직 완전히 분화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교 중심의 전통 사회가 해체되면서 교육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개화기에 서구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 설립된 근대적 학교들에서는 향사의 기능 등이 사라져 버린다. 즉 교육은 강학(講學)의 기능만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종교 역시 교육적 영역에서 지녔던 지분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세속적 가르침의 중심인 학교로부터 제거되면서 종교인식은 분명히 종래의 모든 가르침을 뜻하던 그 이미지에 비해 축소된 셈이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의 근대화를 제국주의적 서구 열강의 팽창 욕구 때문에 전통 교육이 파괴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 특히 온건 개화파의 동도서기론을 넘어서 급진 개화파가 '약육강식,' '생존경쟁,'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기치 아래 교육 영역에도 적용하였던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은 그런 맥락과 통하는 면이 강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영향을 받고 미국 유학을 거치며 배운 유길준(兪吉濬)이 처음 소개했던 진화론은 국내에서 특히 양지차오(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등이 지식층에 폭넓게 읽히면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¹⁰⁾

9) 정순우, 「개화기 서구근대교육의 수용과정과 그 성격」, 『정신문화연구』 15/4 (1992): 168-169면.

10)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회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여기에 미국에서 타오르던 기독교의 선교열은 사회진화론적 팽창주의와 결합하여¹¹⁾ 전통교육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미션스쿨들을 한국에 설립하게 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전통적 유교에서는 분화되지만 새로 유입된 기독교와는 오히려 병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성경 시간 등 일부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 교육제도는 서구 자체에서 이미 철저히 종교로부터 독립 분화된 채 도입되었다. 따라서 언더우드(H. G. Underwood),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스크랜튼(W. B. Scranton) 등 교육사업에 힘을 썼던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들에서의 수업도 분명히 종전의 전통적 교육과 종교간 미분화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비록 선교적 시도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세속적 학교교육과는 구분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서구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김육균, 박영호 및 유길준 등도 민중의 교육, 의무교육 및 국민교육제도 등을 소개하고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교적 전통 교육기관들이 이러한 제도들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히 사회진화론으로 포장된 기독교 제국주의의 팽창으로만 보기에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적 요소가 분리되는 일종의 세속화다. 그리고 종교 개념 자체로부터 보면 세속적 교육까지를 총칭했던 포괄적 상징체계에서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교육의 개념이 따로 걸러진 일종의 심층적 순수화(純粹化)다.

2) 의료 영역에서의 분화

한편 의료 영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즉 전통 사회 속에서 치병(治病)은 단순히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인 의미를 지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병 자체가 오늘날처럼 순수 병리현상으로만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부뚜막 귀신[籠王神]이나 역신(疫神) 등의 탓으로 여겨졌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아프면 무당을 불러 흔히 병굿을 하고 귀

1979, 255-287면.

11) 주진오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1988, 762면.

신을 내쫓아야 병이 난다고들 여겼다. 또 허준(許浚)의 「동의보감」을 거쳐서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에 이르기까지 전통 한의학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기반으로 한 대우주인 자연과 소우주인 인간 몸의 일치를 기반으로 하여 왔다. 즉 대자연의 음양 또는 오행 원리가 사람의 몸에도 적용된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치병은 상당히 종교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반면에 종교는 치병을 일종의 인간 구제의 방법으로 여기는 가운데 양자는 미분화 상태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에 근대 서구 의료제도가 정립되면서 치병은 합리화되고 또 전문화된다. 근대식 병원에서는 무당의 기능이나 음양 오행설 같은 종교적 세계관과는 상관없이 진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즉 의료와 종교 사이에 분화가 생겼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개화기 의료 영역에서의 종교인식도 종교 개념 자체의 축소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화기 근대 의료제도의 유입 및 발달도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인해 오래도록 한국인에게 나름대로 축적되어온 전통 의술이 파괴된 것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실로 한국에 서양 의술을 처음 도입했던 알렌(H. N. Allen) 등은 본래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단기간만 의학 지식을 습득하여 온 선교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의술의 보급보다도 기독교 선교때문에 온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의술은 이미 서양 자체에서 철저히 독립적 영역이 구축되어 기술적으로는 종교와 아무 상관없이 도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의료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서구 기독교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무당의 치병이나 한의학의 비 과학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무당을 종교인으로서 보기보다 병과 돈 문제를 초점 맞추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¹²⁾ 또 한의사들의 약이 약효도 없다 하고 침과 뜸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논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교사들의 활동을 역시 제국주의적 기독교의 확

12) Allen, H. N., "Some Korean Customs: The Mootang." *The Korean Repository*, 3 (1896): 163-165.

대로만 해석하는 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개화기 이후 급속한 서구 근대 의학의 전개는 기독교와 그다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일종의 세속화를 보게 된다. 반면에 종교개념의 차원에서 보면 종전에 포함되었던 치병적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어 온 셈이다. 즉 개화기 이후의 종교 개념은 본래 부수적이라고 할 치병적 요소가 걸러진 심층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도 하겠다.

3) 정치 영역에서의 분화

그러나 개화기에 사회문화로부터 종교의 분화가 가장 심각한 쟁점을 몰고 왔던 영역은 정치 분야였다. 전통 사회의 정치는 역시 종교와 철저히 하나인 셈이었다. 국가의 기본 틀이 유교 이념에 기초하였고, 관료들은 모두 유교적 지식을 갖추고 영남학파나 기호학파 등으로 분류되는 유교적 학맥을 따지면서 사회 체제 속에 참여해 온 것이다. 구조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미분화된 거의 철저한 정교일치 사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개항이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도처에서 교회문제로 인한 충돌사건 즉 교안(敎案)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교회와 문제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 따라서 1899년에는 '교민조약'이 체결되었고, 1901년에는 '교민화의 협정' 그리고 1904년에는 '선교조약' 등이 체결되었다.¹³⁾ 즉 정치권력과는 분리되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교회권력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내국인에게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던 종교적 지위가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원칙적 기반 위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에게만 향유되면서 오히려 그들은 양대인(洋大人)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제국주의 열강의 기독교를 앞세운 문화적 침략이라는 이해는 역시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점차 내국인을 위한 제도 속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으로만 보기에선 부리가 생긴다는

13) 노길명, 「개화기의 교회와 국가」, 오경환신부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교회와 국가」,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561-565면.

점이다. 즉 정치로부터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은 교육이나 의료 영역에서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우선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세력과 정교일치(政教一致)를 주장하는 세력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정교분리로 방향이 잡히지만 그것이 결코 교육이나 의료 영역만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정교분리론자들 가운데에는 「한성순보」 등에 광신적 종교인들을 비판하며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주장했던 소위 종교비판론(宗教批判論)자들이 있었다.¹⁴⁾ 이런 부류는 개화기 갑자기 밀려 닥친 종교인식에 적응하기를 거부했던 성향들을 반영하며 후에 급진적 사회진화론을 거쳐 공산주의 종교비판 노선과도 맞닿게 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정교분리를 주장하되 종교는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려는 급진 개화파(急進 開化派)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해외 경험을 하거나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많았다. 예컨대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무릇 종교란 숭상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개신교의 역할을 소개하고 개인적으로는 유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특정종교에 대한 국교화나 금교는 국민의 분열과 투쟁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한다. 박영효(朴泳孝)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종교란 국민이 자유로이 신봉하도록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었다.¹⁵⁾

한편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극단에는 유교를 국교로 지켜 나가고자 했던 소위 수구파(守舊派)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전통을 중심으로 외세에 저항했던 부류로서 일제 강점기에는 의병활동 등 과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예컨대 유인석(柳麟錫)은 개화에 반대하며 ‘성현종교

14) 당시 「한성순보」 등에는 이런 종교비판 기사들이 종종 실렸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의 입장 소개 정도로 보아야 하지 실제적인 자기 주장들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당시 「한성순보」의 기사들은 직접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배이징이나 도쿄에서 발행된 신문들에 난 것들을 거의 7할 이상 전제한 것들로서 필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필명으로 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이선이, 「「한성순보」에 나타난 일본식 한어의 분석(1)」, 『한국학회보』, 7, 1991, 16, 19면 참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여타의 신문, 잡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15) 전봉덕, 「박영효와 그의 상소사상」, 『한국근대법사상사』, 서울: 박영사, 1981, 179면.

(聖賢宗教) 즉 유교를 우리 나라가 지켜야할 전통임을 강조한다.¹⁶⁾ 또 이러한 유럽의 입장을 반영하여, 고종은 “우리 나라의 종교는 공부자의 도가 아니겠는가 ... 앞으로 나와 동공은 장차 한 나라 유교의 종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⁷⁾ 그리고 중국 강유웨이(康有爲)의 유교 국교화 운동의 영향을 받고 개화기 대동교 운동을 벌였던 박은식¹⁸⁾과 장지연(張志淵) 및 공자교 운동을 벌인 이병헌과 이승희 등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정교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전통적인 유교를 국교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 세계의 종교인 기독교를 수용하여 서양의 나라들처럼 부국강병을 하자는 소위 문명개화론(文明開化論)자들도 있었다. 즉 제국주의의 피침략국가인 약자로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우승열패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상황에서 종교의 힘으로 살아 남아보려는 측면도 있었다.¹⁹⁾ 예컨대 세례까지 받고 귀국했던 윤치호(尹致昊)는 “종교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경우에 모든 종류의 성공의 기초”²⁰⁾라고 하며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사회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사회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동교회 목사를 지낸 최병헌(崔炳憲)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자들을 비판하면서 종교는 국가의 명맥이요, 정치의 근본이므로 서구의 고도문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²¹⁾ 심지어는 김옥균(金玉均)조차도 외래의 종교를 유입시켜 국민을 교화시키는 것도 문명개화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²²⁾고 하였었다.

결국 개화기 정교분리와 관련된 담론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 셈인데,

16) 『의암집』, 권 51, 「우주문답」(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55면에서 재인용).
 17) 허식, 『尊華錄』, 권 6, 「윤음」(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55면에서 재인용).
 18) 박은식은 특히 “종교설”에서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서교나 동학 또는 불교 등 이단종교에 빠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박은식, 『박은식전서(하)』,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5, 416f.)
 19) 여기서 흔히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확산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해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이른바 문명개화론자들은 오히려 피침략국가의 국민으로서 부국강병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사회진화론을 끌어들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 윤치호,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73-1976, 1892년 11월 12일조.
 21) 「황성신문」, 1903년 12월 22일자.
 22) 김옥균, 『김옥균전집』,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147면.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정교분리적 성향이 빠른 속도로 더욱 폭넓게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수구파의 의병활동은 대체로 큰 반향을 못 불러 일으켰고, 조직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개화와 기독교 인사들이 종종 투옥되면서 선교사들의 교회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구체화 된 것이었다. 그리고 통감부도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정교분리가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다는 점을 암시한다고도 하겠다.

개화기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결국에는 정치적 맥락에서 결정된다는 점은 제국주의적 팽창이론을 더욱 후원해 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다양하고도 복잡한 담론체제의 형성과정을 단순한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폭넓은 사회문화적 변화 즉 분화현상의 일부로서 포괄해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분화과정 (또는 세속화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개화기 이후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점차 힘을 잃고 개인문제화(privatization) 되는 경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종교 개념의 차원에서 보면 오랫동안 비본질적이고 이차적이면서도 포함되어 온 정치적 측면들이 걸러지고 역시 종교가 심층적으로 정화(淨化)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화기를 거치면서 종전의 포괄적이었던 종교 개념은 다양한 분화과정을 겪었다. 특히 교육, 의료 및 정치 영역에까지 펼쳐져 있던 개념의 지평이 분화되면서 급격히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종교의 힘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것을 넓은 의미의 세속화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반면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부차적이거나 비본질적이었던 영역을 걸러내고 분리시킨 셈이므로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가 더욱 명백해졌다고도 하겠다. 즉 종교로서는 자체 순수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개념 자체가 전통적 개념과는 아주 달라지게 된 셈이다. 종교라고 하면 더불어 상기되었던 가르치고, 병 고치고, 나라를 질서 잡아주던 이미지 등은 점차 약화된다. 오히려 종교는 무언가 성스러운 것을 믿고 실천하는 상징체계로서 분명해진다. 종교의 논의는 점차 사회 제도적 관심보다는

오직 진리나 신앙 및 구원적 관심 위주가 된다. 이것은 전통종교들(특히 유교)의 경전들에 비해 개화기 이후 종교(기독교는 물론 동학이나 증산교 등)의 문헌들이 더 많은 신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3. 신분제도의 변화와 종교인식

물론 개화기에 종교와 직결된 영역에서만 분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벌써 대동법이 실시되고 차차 분업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신분제도(身分制度)의 분화는 중요하다. 즉 양반과 상민으로 양극화되어 있던 계층 구조 가운데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양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²³⁾ 주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기술직이나 향리 또는 서얼 출신들로 구성된 이 중인층의 등장은 유교적 전통에 안주하던 사대부 양반층과 아직 세력을 구축할 능력이 없었던 상민 계층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향한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예고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인층의 대두는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정신 세계에도 영향을 끼쳐 사대부 양반 중심적 전통 유교 일변도의 독점적 지위를 크게 흔들게 된다.

전통적 유교에 비해 이른바 '실학'으로 불리는 새로운 물결에서 신분주의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물로 박지원(朴趾源)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문하에 들어왔던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서얼 출신 중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었다.²⁴⁾ 또 불교에서도 구한말 거사불교의 선봉을 크게 일으키는 유대처(홍기)는 역관의 집안에서 태어나 의업에 종사했으며 김정희 분하의 중인 출신이었던 오경석(吳慶錫)과 친분을 가지고, 개화파의 중심인물들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을 지도했었다. 또 개화승으로 이름났던 이동인(李東仁)이나 불교개혁운동과 독립운동의 선두에 나섰던 한용운(韓龍雲)도 모두 중인 출신들이었다.²⁵⁾

23) 한영우, 「조선후기 '중인'에 대하여, 철종조 중인통칭운동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5 (1986): 72-85면.

24)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pp. 75-80면.

25) 같은 책, 80-82면.

한편 천주교가 이미 신분상 양반의 지위를 누리기 힘들었던 남인들이나 잔반 혹은 성호학파의 신서파에서 보이듯 중인들과의 연관²⁶⁾ 속에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개신교가 이미 유교적 기반이 단단했던 남한 지역을 피해 차별대우에 항거하는 흥경래난 등이 일어났던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던 것은 또한 당시의 신분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즉 20세기 초 이후 한국 기독교의 급성장을 설명해온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한국고유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 개념의 구조적 유사성이라든지, 기독교 선교가 병원이나 학교 등 부대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것, 또 해방이나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 등을 그 계기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개화기 남한 지역의 유림분포와 1907년 평양대부총회의 극적인 성공으로 인한 대규모 신앙운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당시 서북지방이 지닌 신분제도상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전통종교들의 개혁이나 서학의 도입에서만 중인을 비롯한 새로운 신분계층이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아니다. 개화기에 시작되는 민족 자생종교들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다. 동학을 일으켰던 최제우(崔濟愚)는 서자 출신이요, 최시형(崔時亨)도 고아로서 가난하게 살아왔고, 손병희(孫秉熙)는 지방 서리의 자식이었고, 전봉준(全奉準)은 향리 혹은 평민의 아들이었다고 전한다. 또 동학(東學)의 영향을 받았던 오세창(吳世昌)은 역관출신 오경석의 아들이었고, 김구, 이광수 등은 서북지방의 상민 출신들이었다. 증산교(甑山敎)를 일으켰던 강일순(姜一淳)도 잔반 내지 상민출신으로 추정되고 그의 종도들은 대개 동학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중인이하의 계층이었었다.²⁷⁾

한편 개화기 서구에서 도입된 진화론은 여타의 동물과 인간사이의 불연속성의 관념만을 연결시킨 것이 아니었다. 점차 사회진화론적 성격을 띠면서 양반과 상민 사이의 철저했던 불연속선이 이어지게 된다. 기독교적 배경의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만민공동회에는 심지어 백정 출신 박성춘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내세울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²⁸⁾

26) 같은 책, 76면.

27) 같은 책, 83-102면.

28) 이광린, 『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1989, 38면.

다시 말해서 개화기 사회문화적 변화의 기본 틀은 신분제도의 급변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19세기 후반에 진주민란을 비롯한 여러 민란들 그리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되었던 중인 계층의 급부상 등은 사대부 양반층 사회의 기반을 위협했고, 사회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종교지형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종교는 사대부 양반층의 독점적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성향은 '종교의 대중화(大衆化)'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져왔다.²⁹⁾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한국인 모두가 역시 '호모 렐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임을 확인하게 되는 한국적 종교 개념의 보편화(普遍化)의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하겠다. 전통종교에 비해 개화기 종교들이 평신도 위주의 포교(布教)활동을 더욱 중시하게 되는 것은 이런 맥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또 전통사회에서 '종교'하면 당연히 포함되었던 (양반중심의) 신분개념이 개화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종교인식 가운데서 분리됨을 뜻한다. 즉 오늘날 종교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이지 않은 채 혼합되었던 신분개념을 각질화 시킨 끝에 종교인식으로부터 벗겨버린 역시 커

29)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통계에서는 개화기 이러한 '종교의 대중화' 현상이 잘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종교 신도수는 일본 신도 10,911명, 불교 61,649명, 기독교 200,314명으로서 합계 272,874명으로 나온다.(眞鍋 半八, 『統計上より觀たる朝鮮の宗教』, 『朝鮮』 192 (1931, 5): 122면) 당시 총 인구가 13,129,000 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종교인이 약 2%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그 후로도 포교를 하려 왔던 일본인들은 조선을 '종교적 황무지'라고 까지 했었다.(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株式會社, 1921, 3면)

물론 당시의 조사방법이 상술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도의 문제가 있고, 오직 공인종교(公認宗教)들인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유교도들이나 민족 자생종교 그리고 무속신앙들의 신도수가 빠져 있는 점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신도수가 급팽창하고 있는 것(예컨대 1929년에는 총 종교 신도수가 821,740명으로서 합방 당시에 비해 무려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후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여기에 더욱 활발해진 민족자생종교들의 교세를 감안하면 엄청난 확대인 셈이다.)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종교의 대중화' 현상이 차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란 내면적 순수화 과정의 일부였다.

4. 서구 문화의 유입과 종교인식

신분제도의 변화가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의 대내적 핵심 변수였다면, 대외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연히 서구 문화의 유입이라 할 것이다. 개화 초기부터 유길준 등의 개화파는 '개화'를 대체로 '서구화' 또는 '문명화'로 보고 부국강병의 길로 여겼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의 비판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애국계몽(愛國啓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개화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기만 하였다.³⁰⁾

한편 개화파의 서구 문화 도입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김홍집(金弘集)이나 어윤중(魚允中) 등 당시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되 종교와 사상은 우리의 것이 우수하니 지켜야 된다는 소위 동도 서기론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옥균이나 박영호 등 젊은 층으로 구성된 급진파의 입장에서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처럼 기술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후자는 스스로를 개화당(開化黨)이라 하고 전자를 사대당(事大黨)이라 하여 구분하려 했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개화당은 몰락하고, 실제적인 서구 사회문화 체제의 도입은 서재필(徐載弼)이 중심이 되었던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독립협회나 기독교 선교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였다.³¹⁾

따라서 서구 문화의 유입은 기독교의 동반적인 확산을 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자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후 근 2000년간 지속되어온 유교와 불교 및 민간신앙 위주의 종교지형에 대대적인 수정을 뜻하는 것이었다. 즉 전통 사회 속에서는 유불선 삼교나 무속신앙 등이 공존하였으나 그다지 큰 마찰은 없었다. 비록 신라 때 불교가 들어와 이차돈의 순교를 가져온 것이나 조선 초기 절정에 이르는 유교와 불교의 논쟁과 같은 갈등 상황도 있었다.

30) 이광린, 『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25-29면.

31) 같은 책, 33-42면.

그러나 비록 여러 종교들이 다종교적 상황을 구성해도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고, 조선 이후는 유교 중심사회였으며 모두 중국을 통해 유입된 종교들로서 오랜 세월을 상호 적응하여 왔었기에 거의 종교간 경쟁적 상황이 연출된 바는 없었다.

이러한 면은 한국인의 종교적 '중층다원성(中層多元性)'이라고도 일컬어져 왔으며, 한국인들 자신은 그다지 실감하지 못했었으나 선교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독특한 것이었다. 예컨대, 구한말 선교사로 왔던 존스(G. H. Jones)는 "이론적으로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무속신앙의 세 형식을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혼합된 가르침을 마음에 지나고 결국 이들 셋을 모두 믿고 있다. 한국인은 유교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손을 빌려 불교에 부인을 보내는가 하면, 병이 나면 무당이나 판수를 찾아서 이 세 종교의 연합된 도움(united help)으로 행복에 이른다."³²⁾라고 말했었다.

또 헐버트(H. B. Hulbert)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신봉하는 여러 가지의 상이한 의식들은 서로 상충되지만, 그들의 내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적의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수세기에 걸쳐 서로가 익숙하여지는 동안에 하나의 종교적인 혼성물을 이루었으며, 한국인들은 이러한 혼성물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를 취하면서도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멸시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령 숭배자이다."³³⁾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서구 문화와 더불어 기독교가 유입되면서부터 이러한 중층다원적 종교간 조화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독교는 이질적인 경쟁 상대로 다가왔다. 기존의 전통적 종교들의 중층다원성 속에 기독교가 소위 '토착화(土着化)'되는 데는 개화기를 거쳐서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거의 2000 여 년이나 그저 주어지는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종교가 한국인들에게 다시 인식되게 되었다. 즉 완전

32) Jones, G. H., "The Spirit Worship of Koreans,"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01: 39.

33) Hulbert, H. B., *The Passing of Korea*, London, 1906. 신복룡 옮김, 『대한제국 멸망사』, 서울: 평민사, 1984, 388면.

히 다른 새로운 종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최제우의 동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였다.³⁴⁾ 그러니까 완전히 색다른 기독교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스스로 한울님을 모시는 종교를 창시해 낼 수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예 스스로 상제(하느님)임을 자처하는 증산교의 강일순이 나오면서 그 후로는 여러 자생종교들이 앞다투어 창도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개화기 서구 문화의 핵심 내용으로 본격 도입된 기독교는 실로 한국종교사의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즉 유교와 불교 및 민간 신앙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통종교의 중층다원적 지형을 우선 동양적 국지성이라는 면에서 탈피시켜 서양적 양태를 포괄하는 통문화적(cross-cultural) 차원으로까지 확대한 셈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생적 민족종교들까지의 등장을 유발시켜 역동적인 경쟁을 체험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창출하였다고 하겠다. 더 이상 종교가 하나만 주도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이것은 총체적 의미에서 보면 우선 종교 상징체계의 풍부화와 성숙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여 인식되지 못했던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의식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종교인식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유입은 단순히 한국종교의 주변적 문화들을 서구적으로 바뀌게 한 것이 아니었다. 종교 상징체계 자체가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예컨대, 증산교 이후 한국종교에 최초로, 이른바 화신(化神)적 개념이 등장한 셈이다. 또 동학 이후 접주 제도 등 평신도 중심 신앙공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종교 상징체계라는 점에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에 서구 종교의 영향이 직접적이었나 간접적이었나 하는 것이나, 과연 얼마나 주체적 입장의 수용원리가 개발되었던가 하는 것은 또 다

34) 성공회 의료 선교사로 왔던 랜디스(E. B. Landis)나 헐버트 그리고 후에 클락(A. Clark) 등의 선교사들이 동학을 자체 주장처럼 유불선에 기초하여 서학에 대항하고자 나온 종교라기보다 오히려 서학의 영향을 받고 등장한 종교로 인식하였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즉 전통종교로부터 기독교로의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거처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종교로 보았던 셈이다.(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56, 260, 266면.)

큰 큰 연구들을 요한다고 하겠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적어도 개화기 이후 종교 인식에서는 예전처럼 단순히 경학이나 제의적 실천만이 핵심은 아니다. 매우 구체적이고도 인격적인 궁극적 존재의 개념이 당연시되고, 신앙공동체적 측면이 뚜렷이 부각되는 가운데 교주나 신도 개념이 사회 문화적 맥락과는 별도로 신앙중심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근대적 종교다원주의의 성립은 여러 종교들에 대한 비교적 (comparative) 시각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그저 주어진 종교를 늘 단순히 믿고 살아야 한다는 소박한 종교 인식에서부터 주변의 종교들을 주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경험해보려는 일종의 비판적 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셈이다. 개화기를 지나서 일제 강점기에 이능화(李能和)를 비롯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비교종교학 연구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찰된 종교인식이 꾸준히 심화되어온 결과라 할 것이다.

5. 결 론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은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제다. 이 글에서는 당시 종교인식의 변화에 특히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차원을 주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사회문화 구조의 분화라는 차원이다. 전통사회 속에서는 종교를 포함하는 삶 전체가 사회문화와 미분화되어 있었다. 개화기부터 등장한 서양어 '릴리전(religion)'의 번역어로서 '종교'의 통용은 오늘날처럼 종교가 삶 속의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들로부터 구분되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된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종교는 향사적 의례의 일부 형식으로 포괄하였던 교육의 영역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또 치병적 의례의 일부 형식으로 포함해 왔던 의료 영역에서도 힘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좀더 복잡한 담론 형성을 거치기는 했으나 종교는 결국 국교적 공동체의 형식으로 지켜왔던 정치의 영역에서마저 분리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개화기 이후 종교는 사회문화 구조의 분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세속화를 철저히 경험하고 결국

자체 개념의 외연이 축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이미 축소된 의미의 지평에서 보면, 오히려 개화기 종교인식의 변화는 전 근대적인 종교 개념들이 내포하였던 이른바 비본질적인 종교의 껍데기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원초적인 것들만 남게 된 일종의 종교 자체의 순수화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둘째는 대내적 신분제도의 변화라는 차원이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인 계층은 개화기에 이르러 사대부 양반 중심의 전통 유교사회를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것은 결국 종교가 사대부 양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로 인식됨을 뜻한다. 또 이러한 소위 '종교의 대중화'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마침내 종교 개념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오늘날의 좁은 종교 개념으로부터 보면, 종교공동체의 상징체계가 신분제도라는 부차적 요소로부터 해방되어 신앙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일종의 내면적 정화과정이었다.

셋째는 대외적 서구 문화의 유입이라는 차원이다. 특히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동반 확산된 기독교는 전통종교들의 중층다원성이 지닌 동양적 국지성을 타파하여 한국종교를 통문화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생적 민족종교들까지 생겨나 역동적 경쟁상황이 실현되는 근대적 종교다원주의를 초래한다. 특히 다른 종교가 의식되면서 종교인식 그 자체가 중요해진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근대 한국종교학(韓國宗敎學)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 여건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종교다원주의에서 비롯하는 성찰된 종교인식이 심화된 풍토였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개화기는 사회문화적 큰 변동의 시기였던 만큼 또한 종교인식의 대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 개념 자체가 구체적으로 순수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다원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 분명한 획을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

<Abstract>

Socio-cultural Changes and Religious Cognition of the Modernization Period in Korea

Kim, Chongsuh

This research examines the three dimensions of socio-cultural changes that influenced religious cognition in the modernization period of Korea. The first dimension is structural differentiation in the society and culture. From the standpoint of traditional religion, religions in the modernization period experienced the so-called 'seculariza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medicine and politics. And the concept of religion itself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its scope of meaning.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might be also said that the change of religious cognition in the modernization period means the separation of a pre-modern and inessential layers from religion. Thus we might think only the primordial essence of religion survived and such a change was a purification process of religion itself.

The second dimension is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country. The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critically broke down in a hierarchical confusion at that times. This means that religion can no longer be monopolized by th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but is recognized as a natural right for everyone. And this kind of 'popularization of religion' has guaranteed the universal notion of religion in the Korean situation since that time.

The third dimension is the influx of Western culture. Above all Christianity, by introducing various Western cultural aspects to Korea,

destroyed Eastern provincialism established by the multiplicity of traditional religions and expanded the concept of religion to the cross-cultural context. It might be said that this trend stimulated indigenous religious movements, resulting in a religious pluralism in its modern sense which brought about the foundation for a dynamic situation of competition.

It is the reflexive ethos of religious cognition derived from this modern religious pluralism that gave rise to the religio-comparative and critical studies of religion early in modern Korea.